



전주교대, 재학생 40명 농촌일손돕기 나서

전주교육대학교 재학생 40명은 지난 15일 가을철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농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찾아 일손돕기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학생들은 생강과 무를 수확하고 또 그간 일손 부족으로 미뤄왔던 마을 주변 환경정리 등 봉사활동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윤리교육과 김성환 지도교수는 "짧은 시간이지만 마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학생들에게는 함께 땀 흘리며 봉사한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병춘 총장은 "농촌 일손을 돕는데 자발적으로 참여해준 학생들이 대단스럽고 고맙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남원 서남환경·중양로타리클럽, 고구마 60상자 전달

남원시 도봉동(동장 정남훈)은 사회적기업 (유)서남환경(대표 서덕교)과 남원중앙로타리클럽(대표 김영호)에서 직접 농사지은 고구마 60상자(상자당10kg, 환가 120만원)를 도봉동에 기탁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고구마는 서남환경에서 모종을 직접 심어 재배하고, 남원중앙로타리클럽 회원들과 함께 수확한 것으로, 도봉동 관내경로당 22개소와 도봉동 1일 1가구 찾아가는 소통행정 방문가구 및 지역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서남환경 서덕교 대표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고구마의 달달함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 거리극축제 '노상놀이야' 남원 행사 성료

남원시는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2022 전라북도 거리극축제 '노상놀이야' 남원시 프로그램인 '조선에서 돌아온 황희 정승'의 공연을 지난 15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황희 정승 공연은 2022년 2월 공모사업을 통해 총 6개 시·군(남원시·고창군·부안군·임실군·전주시)이 선정되어, 지난 5월부터 광한루원과 남원예촌 일원에서 매주 토요일 총 15회 진행했다. 관소리 춘향전 중심의 광한루원 이야기에서 탈피, 시작을 알리는 길놀이 판국·남원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인 광한루원을 건립한 병촌 황희 정승 이야기를 남원을 찾은 관광객들과 함께 신나는 거리극 한 판을 벌였다. /남원=김기두 기자

'산악자전거(MTB)' 스릴에 '흠뻑'

정읍시 칠보산 일원서 전국대회 성료... 각지 500여명 참가

2022년 정읍 내장산 산악자전거(MTB)대회가 지난 16일 정읍시 칠보산 일원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정읍시체육회와 정읍시자전거연맹이 주최·주관하고 정읍시가 후원한 이번 대회는 전국 각지의 산악자전거 동호인들의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지역홍보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산악자전거 선수와 동호인 350여 명과 갤러리·운영요원 150여 명 등 총 500여 명이 참가했다.

대회는 크로스컨트리(XC) 경기로 진행됐으며, 남·여 별 상급자, 중급자, 초급자 등 총 9개 부로 나뉘어 기량을 겨뤘다.

대회 코스는 정읍시립박물관에서 시작해 내장파출소와 구랑교, 화평길 삼거리, 탐성마을 입구, 보림사, 수청리 저수지, 부부교차로, 내장교차로 등을 거쳐 원점으로 복귀하는 38.4km 코스였다.

폭 1미터 남짓의 아슬아슬한 산길을 질주하는 선수들의 모습은 아슬아슬한 박진감을 선사했다.



시는 공무원들을 투입해 안전요원으로 배치하고, 간호사 인력을 투입해 의료자원을 실시했다.

정읍경찰서에서는 행사장과 코스 내 교통통제에 협조했고, 정읍시자전거연맹 회원들은 행사장 내 주차 안내를 도왔다. /정읍=김대환기자



전주교대, 전주·군산부설초와 체육대회 개최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지난 14일 전주·군산부설초등학교 교직원 약 120명이 참여한 가운데 교육가족 체육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7년 이후 대학에서 오랜만에 열린 이번 체육행사는 3개교가 학교별로 성별, 나이, 직급 등을 고루 섞어 팀을 구성해 단체줄넘기, 피구, 배구 등 종목 경기를 리그전으로 치렀다.

이날 운동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열린 응원을 펼친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축제 분위기를 즐기고 직원들 간의 친밀감을 쌓았다.

이석구 총무처장은 "그동안 코로나9로 인해 전체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일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체육대회를 통해 친목 도모는 물론 대학의 결속력을 다지는 자리가 됐다"고 전했다.

박병춘 총장은 "행정 업무의 스트레스는 다 잊고 마음껏 즐기고 웃으며 화합하는 시간이었다"며, "활발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며 함께 성장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고, 교직원 복지 증진을 위해서도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체육대회는 전주부설초등학교가 최종 우승했다. /정은성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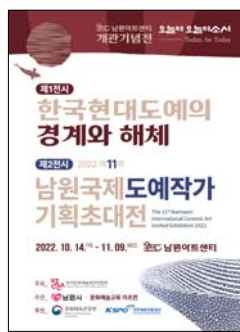
남원아트센터, '오늘이 오늘이소서' ... 11월 9일까지 전시

남원아트센터(구 KBS방송극)는 10월 28일 개관을 앞두고 '오늘이 오늘이소서' 전시를 14일부터 11월9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 국내작가 93명과 해외작가 40여명 등 18개국 133명이 참여하는 도예분야에서는 전국에서도 보기 드물게 전 세계의 다양한 도자 작품들이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전시는 전통 도예기법을 계승한 도예작품과 현대 조형미를 중심으로 한 현대조형작품으로 구성되며, 제1전시는 한국현대도예의 경계와 해체를 주제로 점토 매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시도로 그 영역을 확장·진화시키고 있는 현대도예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고, 제2전시는 남원국제도예캠프 기획초대전으로 주제로 남원 도자기의 뿌리를 찾아 잊혀져간 우리 도자문화의 역사적 우수성을 재조명하고 이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한다.

행사가간 중 부대행사로 한국 현대도예의 현황을 주제로 작가와의 만남과 남원국제도예캠프 기획초대전 작



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미술전시를 접하기 힘든 지역민들의 문화향유를 증진시키고, 지역예술의 거점으로 자리할 남원아트센터의 역할을 확인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개인택시 정읍향우회, 고향에 장학금 전달

전주개인택시 정읍향우회(회장 김영철)는 17일 정읍시민 장학재단(이사장 이학수)에 인제 육성을 위한 장학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전주개인택시 정읍향우회는 전주에서 개인택시 사업을 하는 종사자들로 구성된 향우회로 정읍이 고향인 회원 90여 명으로 이뤄졌다.

2015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정읍시민장학재단에 장학금을 기부하면서 고향 사랑과 후배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김영철 회장은 "고향 정읍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키우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육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고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향우회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학수 이사장은 "고향을 생각하며 장학금 기탁을 이어 주신 향우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기부해 주신 장학금은 우리 지역 학생들이 소중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한돈협 남원지부, 이웃사랑 돼지고기 전달

남원시 희망복지지원팀은 대한한돈협회 남원지부에서 지난 14일 시청을 찾아 4백만원 상당의 돼지고기 360kg를 전달하며 온정의 손길을 더했다고 밝혔다.

대한한돈협회 남원지부는 2015년도부터 매년 돼지고기 전달을 통해 이웃돕기를 실천해오고 있는 모범 기부자로, 관내 2개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해 저소득 세대, 홀로사는 어르신 등 소외계층 180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소시호 남원지부장은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이 시기를 함께 이겨냈으면 하는 취지에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한편 방기자 주민복지과장은 대한한돈협회 측에 "지속적



인 관심과 따뜻한 사랑에 감사를 드린다며,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곳에 빠짐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